

연예기획

STAR FOCUS

싱글앨범 '니까짓게'로 가요계 접수

씨스타



‘신나게 놀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다는 걸그룹 씨스타(왼쪽부터 소유, 보라, 효린, 다슴). 싱글앨범 ‘니까짓게’로 음원차트 1위를 휩쓴 씨스타의 급성장이 놀람기만 하다.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이번엔 ‘까도녀’…내숭 떨 필요없어 좋아”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 콘셉트)

얼굴보다 음악 올인…폭풍 성장세
세번째 앨범 대부분 차트 1위 ‘울킬’

까칠·발랄 대신 까칠한 무대로 승부
가장 씨스타다운 모습 기대하세요

김원겸 기자 gymmy@donga.com

신인 그룹 씨스타(보라 효린 소유 다슴)는 5개월간 무섭게 성장했다.

6월 ‘푸시푸시’로 데뷔해 주요 음악차트 정상의 문턱까지 오르며 가능성을 보여준 뒤 8월 ‘가식걸’로 일부 음원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고, 최근 발표한 세 번째 싱글 ‘니까짓게’는 대부분의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이른바 ‘울킬’을 기록했다.

음반을 낼수록 높아지는 성적에도 보람을

느끼지만, 음악성과 가창력을 인정받은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자부심이다.

씨스타는 “얼굴보다 음악으로 먼저 인정받자”는 목표로 예능프로그램 보다 음악프로그램 출연에 중점을 뒀다. 언제부터인가 걸그룹 신곡 발표의 통과례가 된 누리꾼들의 ‘MR제기’ 판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춤을 추면서도 파워 넘치는 노래를 흔들림 없이 부르는 라이브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데뷔할 때부터 음악으로 먼저 인정받은 후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자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MR제기 논란도 피해갔고, 음악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도 받는 것 같아 힘이 생긴다. 이런 일들로 인해 앞으로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한다.”(효린)

씨스타는 자신들의 매력에 대해 “무대 위에서 즐길 줄 아는 것”이라고 평했다.

“‘신나게 놀다’는 느낌으로 무대에 오른다. 연습할 때나 실제 무대나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무대를 즐긴다. 데뷔부터 많은 무대를 경험하고 배우다보니 무대를 즐길 줄 알게 된 것 같다.”(효린)

“많은 무대를 하다보니 여유를 갖게 되고, 더 보여주려고 하게 된다. 앞으로 무대 위에서 더 잘 노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보라)

다만 걸그룹에 비해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많지 않은 씨스타가 얼굴을 많이 알리게 된 ‘의외의’ 계기는 이른바 ‘파당보라’ 사건이다. 8월 말 한 야외이벤트에서 공연하다 보라가 빗물에 미끄러져 얼굴을 그대로 무대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보라는 왼손 엄지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이 영상이 미국의 한 TV프로그램에 ‘재미있는 영상’ 2위까지 올랐을 만큼 화제를 모았다.

“그때 장피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다. 그래도 씨스타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됐다니, 좋은 추억이다.”(보라)

세 번째 싱글 ‘니까짓게’는 일렉트로닉과 록이 결합된 사운드에 솔 보컬이 어우러진 경쾌한 노래로, 사랑의 상처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여자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멜로디가 숨 쉴 틈 없이 촘촘하게 연결돼 상당한 가창력이 필요한 곡이다.

패션과 춤 등 시각적인 면은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를 뜻하는 ‘까도녀’가 콘셉트다. 씨스타의 실제 모습과 가장 흡사한 가장 ‘씨스타다운’ 스타일이라고.

“‘푸시푸시’나 ‘가식걸’ 활동 때는 콘셉트에 맞춰 귀엽고 까맣힌 표정연기, 예쁜 척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어려웠다. ‘니까짓게’는 실제 우리와 가장 비슷해서 더 무대에서 즐길 수 있고, 사람들이 그런 씨스타를 좋아해주는 것 같다.”(효린)

KBS2 “가사 바꿔”
MBC “춤동작 고쳐”
SBS만 “모두 OK!”

‘3가지 버전’으로 출연
씨스타 공중과 수난사

씨스타는 3일 KBS 2TV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등 지상파 3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니까짓게’의 방송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니까짓게’ 무대는 지상파 방송 3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KBS에서는 가사를 바꿔 부르고, MBC에서는 춤을 일부 변경했다. 3사마다 다른 심의 때문이다.

KBS 2TV ‘뮤직뱅크’에서는 ‘니까짓게’가 상대방을 비하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니까짓게 댄스’를 ‘니 사랑이 댄스’로, ‘넌 선수’를 ‘넌 센스’로 바꿨다.

MBC ‘쇼 음악중심’에서는 춤동작이 문제가 됐다. 영명이에 원을 그리는 춤동작(일명 디제잉춤)이 선정적이라는 연출자의 지적에 따라 이 춤동작을 뺐다.

SBS ‘인기가요’에서만 원래 가사 그대로 노래하고, 원안대로 춤을 춘다.

방송 3사 모두 ‘니까짓게’의 무대 의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애초 기획된 의상을 입지 못하고 있다.

씨스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9일 현재 멜론, 도시락 등 주요 음악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보상을 받고 있다.

김원겸 기자 gymmy@donga.com



스타
그대 이런 일이

(12월 10일)

81년 ‘도시로 간 처녀’ 사상 첫 상영 중단 ‘안내양 몸수색’ 장면 등 삭제 후 재개봉

“가난이 뼈저리게 느껴오는 춘궁기에 접어들면 농촌 처녀들은 방직공장 여공에 대한 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10환짜리 한 장이 귀하기 짝이 없는 농촌에서 연약한 여자의 별이로 송아지도 사고 옷가지도 장만하고 발매기를 살 수 있는 길이란 방직공장 직공 별이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 서던 서민들의 처지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가파른 길 위에서 도 좁쳐로 나아지지 않았다. 1960년 2월11일자 동아일보에 담긴 시대의 풍경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고 ‘농촌 처녀’들은 도시로 발길을 향했다. 부자집 식모, 공단 여공... 고향집 가게를 책임지고, 어린 동생의 학비를 조달해야 했던 그들 사이에 버스 안내양도 있었다. 1981년 오늘, 버스 안내양들의 애환과 절망, 희망을 그린 영화 ‘도시로 간 처녀’가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상영을 중단해 파문이 일었다.

소설 ‘무진기행’의 작가 김승옥이 쓴 시나리오를 김수용 감독이 연출하고, 유지인과 이영옥, 금보라가 주연한 ‘도시로 간 처녀’는 7일 전 개봉했다. 영화는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당시 ‘호스티스’를 소재로 한 영화들의 홍수 속에서 신선한 소재와 선명한 주제 의식이 돋보여 ‘우수영화’로 선정됐다.

하지만 12월7일 전국자동차노조총연맹이 “극중 ‘뺑뺑’을 의심하는 화사측이 안내양들의 몸을 뒤지는 장면, 마치 안내양들이 남자들과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 등을 문제 삼아 안내양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문화공보부 등에 상영금지 조치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12월9일 200여명의 안내양들이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고 한국노총도 비난 성명을 냈다. 결국 제작사가 12월10일 ‘도시로 간 처녀’를 극장에서 내리면서 논란은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영화의 상영 중단에 대해 이번에는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 평론가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상영 중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영화 속 허구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직업에 대한 비하의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님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파문은 제작사가 몇 개 장면과 대사를 삭제·수정해 이듬해 6월 재개봉하면서 가라앉았다. AP통신과 NHK 등 외신보도로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도시로 간 처녀’ 파문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영화계 안팎의 대표적 논쟁으로 기록됐다.

‘도시로 간 처녀’의 시나리오에는 작가 김승옥의 취재에서 출발했다. 당시 버스 안내양들은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야 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인식도 낮았다. 승객들의 차비 중 일부를 빼돌리는 ‘뺑뺑’은 당시 운수업체 은어로 1970년대를 풍미한 유행어가 됐다.

안내양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수시로 몸수색을 당해야 했다. 급기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었고 이에 격렬히 항의하는 시위와 농성도 계속됐다.

인간적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진 버스 안내양들,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온 이들은 힘겨운 한 시대를 살아낸 우리들의 누이였다.



버스 안내양의 애환과 희망을 그린 김수용 감독의 1981년 영화 ‘도시로 간 처녀’의 한 장면. 스포츠동아DB

글:동작 최경아

성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자문위원
저서: 100일 요가(결코 아깝지 않은 내 몸 투자)



편진 | 김원겸 기자 pudgala@donga.com

최경아 교수의 6색 건강요가

월 오피스요가 | 화 치유요가 | 수 주부요가 | 목 다이어트요가 | 금 골프요가 | 토 부부요가

퍼터 잡고 상체돌리기...허리유연성 UP!

임안에서 사베트가 스스로 녹두 머리에, 얼굴에, 그리고 입술에 닿았다 가는 금세 녹아버리는 눈! 어느새 제법 큰 눈꽃송이들이 나를 향해 날아온다. 소복이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노스텔지어가 따로 없고 온통 하얀 세상이다. 폭신폭신한 솜사탕 위에 사랑하는 사람과 누워보고 싶다. 영화 ‘러브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환상적인 분위기는 골프 동반자 모두를 설레게 한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핸디가 높거나 낮거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들 아이처럼 기뻐한다. 매너 좋고, 실력 좋고 순수해서 더욱 멋진 사람들... 필드에서 흰색 그린은 처음 본다. 게다가 퍼팅을 하고 나면 비행접시처럼 가운데 흰 목도리를 두른 볼이 귀엽기만 하다. 롱퍼팅일수록 두꺼운 목도리로 뚱뚱해지는 볼... 마치 눈사람같다. 퍼팅 후 공이 지나간 자리도 정확히 표시되어 커닝하기도 용이하다. 덕분에 버디까지 성공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설경이 제대로인 수채화 속의 주인공들 모두 행복에 겨워한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유연한 몸을 만드는 골프요가를 소개한다. 하체를 고정하고 어깨와 허리를 최대한 비틀어주는 동작은 비거리 향상은 물론 눈 때문에 미끄러운 페어웨이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 안정된 피니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집중력 강화로 퍼팅 성공률도 높인다면 당신은 필드 위의 멋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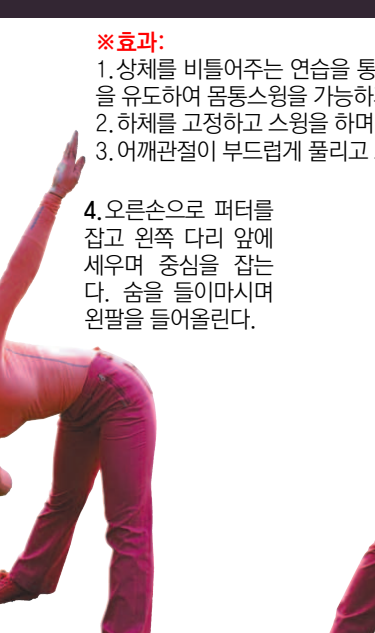
1. 양 다리를 어깨넓이의 두배로 벌리고 서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퍼터를 잡은 왼손을 오른쪽 다리 앞에 두고 오른팔은 앞으로 뻗는다.



2.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어 오른팔을 하늘로 향한다. 시선은 오른손 끝을 바라본다. 10초 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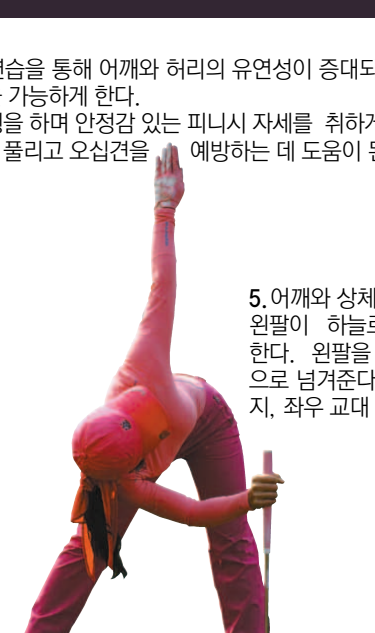
3. 상체와 허리를 최대한 비틀어주며 오른팔을 반대방향으로 넘겨준다. 5초 정지.



※효과:

1. 상체를 비틀어주는 연습을 통해 어깨와 허리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바디턴을 유도하여 몸통스윙을 가능하게 한다.
2. 하체를 고정하고 소윙을 하며 안정감 있는 피니시 자세를 취하게 된다.
3. 어깨관절이 부드럽게 풀리고 오십견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오른손으로 퍼터를 잡고 왼쪽 다리 앞에 세우며 중심을 잡는다. 숨을 들이마시며 왼팔을 들어올린다.



글:동작 최경아

성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자문위원
저서: 100일 요가(결코 아깝지 않은 내 몸 투자)

